

## 한인교회 선교사 파송 현황 발표 “2세 견습 선교사 육성 프로모션 할 것”

40년간 선교사 120여 개국에  
총 2,738명 파송·협력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가 미주 한인교회의 지난 40년간 선교사 파송 현황에 대한 첫 조사를 실시하고, 2025년 8월 14일 나성영락교회에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미주 한인교회와 선교단체들은 120여 개국에 총 2,738명의 선교사(1,730가정)를 파송하거나 협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주 한인교회의 선교 역사상 최초의 본격적 통계 조사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된다.

간담회에서 KWMC 사무총장 조용중 선교사는 “1988년 제1차 한인세계선교대회 당시 미주에서 파송된 선교사는 10명도 채 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1.5세대와 2세대를 아우르는 선교의 세력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세대 선교사 육성에 대해 “한가지 예로 뉴욕 맨하탄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중에 1년간 해외로 견습 선교를 다녀온 청년이 주님의 제자로 바뀐 경우를 봤다. 이제 이들이 단기 선교를 넘어서 중장기 선교 지원을 통해 귀중한 선교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가 미주 한인교회의 선교사 파송 현황에 대한 첫 조사를 실시하고, 8월 14일 나성영락교회에서 결과를 발표했다. 사무총장 조용중 선교사(좌)와 이우승 목사(우)가 참석했다. © 기독일보

록 KWMC에서 프로모션을 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조 선교사는 미전도 국가로의 효과적인 선교 접근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는 BAM(Business as Mission) 선교에 대해서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음식점을 열어 비즈니스에 성공한 선교사 케이스를 알고 있지만 선교에 많이 헌신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게 됐다”며 “선교 사

역자와 비즈니스 사역자가 함께 한 곳에서 사역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고있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기관은 총 63개(교회 48곳, 선교단체 15곳)로, 응답률은 약 50.4%에 달했다.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파송 선교사의 80%가 부부 선교사이며, 70% 이상이 경력 15년 이하로 세대 교체의 흐름이 감지됐다. 주요 사역

지역은 아시아(41.5%)와 아메리카(23.6%)에 집중되었으며, 선교사들이 주로 교회 개척(35.1%)과 교육 및 신학교 사역(21.3%)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 중에서는 태국(89명), 캄보디아(87명), 중국(84명), 일본(71명) 등 동남아 및 동북아 지역에 선교사 파송이 집중됐다.

토마스 맹 기자 → 2면에서 계속

## 연극 <사랑해, 엄마> LA 온다



조혜련 집사가 연출을 맡고 출연하는 연극 <사랑해, 엄마>가 LA를 찾는다. 러빙워십이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10월 12일(주일), 오후 7시, 13일(월) 오후 2시, 7시에 다운니 극장(Downey Theatre, 8435 Firestone Blvd, Downey, CA 90241)에서 개최되며, 조혜련(엄마), 조지환(아빠), 정지환(아들), 유민정(이모&할매), 엄대(딸티), 이서주(친구 선영), 김연수(친구 허풍) 등이 출연한다.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생선 장수를 하며 홀로 아들을 키우는 엄마의 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은, 코믹한 장면들로 폭소를 자아내면서도, 암선고를 받고 아들을 위해 마지막을 준비하는 엄마의 모습으로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한다.

일시: 10/12 (주일) 7시  
10/13 (월) 2시, 7시  
문의: (213) 357-1565, (562) 766-9494

## 美 국무부 “北, 처형·고문·강제 낙태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 지속”

北 인권 실태, 여전한 폭력과 억압  
강제낙태·불임, 아동·청소년강제노동  
문화·정보 유입 차단과 엄격한 처벌  
국제사회 ‘정치적 축소’ 의혹 제기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24년 국가별 인권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처형, 고문, 강제 낙태 등 광범위한 인

권 침해를 국가 통치 수단으로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공개 처형, 신체 학대, 강제 실종, 연좌제 등 폭력과 강압을 통해 통치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임의적 살해, 불법 구금, 종교·표현·언론의 자유 전면 제한, 인신

매매, 강제·아동 노동 등 심각한 문제들이 여전하다.

특히 정치범, 탈북 시도자, 반체제 인사, 심지어 아동과 임산부까지 공개 처형된 사례가 보고됐으며, 주민을 강제로 참관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현재 북한에는 정치범수용소(관리소) 5곳이 존재하며, 수감자는 8~20만 명으

로 추정된다. 이들 중 상당수가 고문, 질병, 기아,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임신 여성, 정치범, 장애인 등에게 강제 낙태를 할 뿐만 아니라, ‘혼혈 아기’ 출산을 막기 위한 체계적 정책도 존재했다.

강혜진 기자 → 12면에서 계속

### 미주기독일보



TV기독일보 주간뉴스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뱅크런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평가상가비 총 60%를 다들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2025년 대박**  
**BTS SOLAR DESIGN 213.500.8000**



# ADU 전문

## 리|모|델|링

###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25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K-Urban Builders**  
CSLB # 854389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 광복 80주년, 다음 세대 위해 깨어나야

남가주교협 광복 80주년  
감사예배, OC교협, OC  
기독교연합회 공동 주관

남가주교협(회장 샘신 목사)이 광복 80주년 감사예배 및 축제를 17일 오후 5시에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를 개최했다. 남가주교협, OC교협,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가 공동주관으로 진행됐다.

샘신 목사는 개회사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1945년의 해방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뤄진 은혜였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교회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다.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이름없는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 하나님께서 해방의 문을 여셨다”며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시작된 회개와 기도



남가주교협(회장 샘신 목사)이 광복 80주년 감사예배 및 축제를 17일 오후 5시에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에서 개최했다. 화랑 청소년재단의 공연(오른쪽)이 있었다. ©기독교일보

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고, 결국 자유와 복음의 문을 열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설계도 위에 서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광복 80주년은 단지 기념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깨어나는 결단의 날이 되어

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성 목사는 설교에서 “한가지 소망은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말씀과 기도가 멈추지 않을뿐 아니라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한다”며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을 일

으킬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목사중창단, 남가주장로성가단, 화랑합창단, 도산켈렛 등이 참여해 합창 및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한 대한민국, 교계, 미국을 위해 참석자 전원이 중보기도를 했으며, 현

명효(화랑청소년 대표), 엄규서 목사(한인목사회 증경회장), 이득표 장로(남가주장로회 회장)가 참여했다. 감사예배는 개회사, 국민의례, 설교, 중보기도 순으로 진행됐으며 정해진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토마스 맹 기자

## WMU ‘디지털 설교 혁신 프로젝트’ 설문 캠페인 전개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 설교 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디지털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설득력 있고 역동적인 설교를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 총장은 “이번 설문은 단순한

의견 수집이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 반영될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며 “참여자 한 분 한 분의 응답이 향후 훈련 프로그램의 방향을 결정짓는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고 강조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는 다음 링크를 통해 응답할 수 있다: <https://forms.gle/bQqz6B1SJKKwNtPSA>

→ 1면 기사 <한인교회 선교사...>에 이어서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미국 내 선교사(271명)를 비롯해 멕시코(78명), 과테말라(57명), 브라질(38명) 등에서 활발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튀르키예(56명), 이스라엘(42명), 키르기스스탄(40명) 등지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가 조사되었으며, 아프리카에서도 케냐(45명), 탄자니아(32명), 우간다(21명) 등지에 선교 인력이 파송되어 있었다.

조용중 사무총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민 1세대 중심의 선교가 이제는 1.5세대와 2세대를 향한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보여준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창의적 접근과 협력 선교 모델이 절실한 시점이다. 미주 한인들의 이민 배경과 문화적 정체성은 세계 선교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일부 교회와 단체의 보안 우려, 제한된 응답 등으로 인해 심층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KWMC는 향후 보다 정교한 자료수집을 위해 ▲신뢰 기반 강화 ▲조사 방식 개선 ▲정보 보호 장치 강화 ▲응답률 제고 전략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주에 있는 한국계 선교단체와 교단 선교회, 지역 교회들이 전 세계에 파송하거나 협력 중인 선교사들의 분포와 활동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25년 3월부터 진행됐다. 미국 내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선교단체와 그들이 세계 각지에 파송한 선교사들의 분포 및 사역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미주 한인교회의 선교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다.

## ANC 온누리 2025년도 제20차 장학금 수여

장학생 85명에 \$146,500 지급

ANCSF, 2025년도 제20차 장학금 전달식 개최2025년 8월 16일(토) 오후 3시, 온누리교회 장학재단(ANCSF)이 제20차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올해 장학금에는 총 228명이 지원했으며, 11명의 심사위원이 4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최종 85명의 장학생을 선정했다. 선정된 장학생 대학부 51명에게 1인당 \$1,500, 대학원생 34명에게 1인당 \$2,000씩 총 \$146,500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2006년 시작된 ANC 장학회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장학회는 말씀과 그리스도의 정신에 기초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여, 교회를 섬길 미래의 크리스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행사는 제임스 김 목사의 시



2025년 8월 16일(토) 오후 3시, 온누리교회 장학재단(ANCSF)이 제20차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ANC온누리교회 장학재단

작기도로 시작되어, 강승호 장로(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장학금과 장학증서는 김태형 목사(ANC 담임 목사, 장학회 회장)가 직접 전달했다.

장학생 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이은성, 김민희, 송은아 학생은 장학금 덕분에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

다며, 앞으로 받은 사랑을 나누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사랑을 나누는 장학금’을 표방하는 ANCSF는 내년에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할 것이라 밝혔다. 김민선 기자

## RE\_VIVE CHURCH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세미나

미성대학교, 미카(Missional Church Alliance, MiCA), 미주복음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세미나가 목회자 및 선교 리더를 대상으로 8월 28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열린다. 미성대학교 총

장인 이상훈 박사가 강사로 나선다.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가는 오늘의 교회 현실 속에서 교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길을 모색한다. 성도들이 일상에서 복음을 살아내도록 돕는 실천적 해법을 제시하며, ▲사명 회복과 방향 전환 ▲선교적 목회의

DNA와 문화 형성 ▲일상과 선교의 연결 ▲선교적 실천 공동체의 구축 등을 다룬다.

선착순 4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며 점심이 제공된다. 문의: 미성대 323-643-0301 미주복음방송 714-484-1190

## 나성제일교회 창립 58주년 엘리베이터 완공감사 및 명예장로·권사 취임예배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지난 58년간 큰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시게한 과거도 있었던 저희 교회가 죄악의 깊은 터널을 지나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용서, 화평의 새 출발을 맞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교회 58년 숙원이던 본당 엘리베이터 공사도 완공되어 명예장로와 명예권사 취임식을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이 기쁜 자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서종천 외 교우일동

명예장로 취임 : 이현근, 최호균

명예권사 취임: 권영애

■일시 : 2025년 8월 24일 (주일) 오후 2시

■장소 : 나성제일교회 T.(213)388-7101

213 S.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나성제일교회

나성제일교회  
역대 담임목사

- 1대 최동진 목사
- 2대 김성권 목사
- 3대 김준곤 목사
- 4대 장창덕 목사
- 5대 조현일 목사
- 6대 정석산 목사
- 7대 김철원 목사
- 8대 서출선 목사
- 9대 김은태 목사
- 10대 김광삼 목사
- 11대 김문수 목사
- 12대 차성국 목사
- 13대 서종천 목사



예수님과  
함께 타는  
엘리베이터  
An elevator ride with Jesus

※ 주일예배 2025년 8월 24일에 완공됨



# “엄마, 거짓말하지 마. 우리가 언제 김정은이 준 쌀 먹어 본 적 있어?”

유니파이코리아 주최, 바이올라 대학서, 815: Pray It Forward 행사,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 비와이 공연

지난 16일(토), 바이올라대학교(Biola University)에서 유니파이코리아(Unify Korea, 대표 팀 창 교수) 주최로 ‘815: Pray It Forward(기도로 나아가자)’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유니파이 코리아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다음 세대에게 광복과 조국의 역사와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이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행사의 주제인, ‘기도로 나아가자’처럼, 행사 전 40일, 행사 이후 40일 간 이 주제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나가는 것 또한 이 행사의 취지이다.

행사는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Beyond Utopia, 감독 Madeleine Gavin, 2023년) 상영으로 시작됐으며, 패널 토의, 태권도 공연, 비와이 콘서트가 이어졌다.

‘비욘드 유토피아’는 북한의 현실과 탈북의 과정을 생생하게 담은 작품으로, 2000년부터 1,000명이 넘는 탈북민을 구출한 갈렘션교회(calebmission.com)의 김승은 목사를 중심으로, 할머니·부모·두 딸로 구성된 한 탈북민 가족이 중국을 거쳐 라오스와 태국을 지



지난 16일(토), 바이올라대학소에서 유니파이코리아(대표 팀창 교수) 주최로 ‘815: Pray It Forward(기도로 나아가자)’ 행사가 개최됐다. 사진은 패널 토의 장면. 팀창 교수(리버티대학교)가 진행자로 나섰으며, 패널로 메리 리, 해나 송, 김승은 목사, 탈북자, 써니 황이 참가했다. © 기독일보

나 한국에 정착하기까지의 여정을 따라간다. 경찰의 눈을 피해 한밤중 산길을 지나던 이들이, 브로커에 의해 같은 길을 반복해 돌게 되고 약속한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받는 장면은 탈북의 험난함을 보여준다.

또한, 탈북자 딸과 어머니의 대화는 그들이 얼마나 북한 정권의 선전과 감시를 내면화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준다.

“북한이 좋다고 아직도 생각해? 엄마 생각대로 그대로 말하면 돼.” “김정은 선생님께서 어리신 나이에 술한 인민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 “엄마, 거짓말하지 마라. 엄마가 언제 김정은은 준 쌀을 먹었다고... 김정은에게 실망한 적이 있는지 말해봐.” “나라가 좀 잘 살고 모든 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우리 김정은 원수님께서 이 나라를 거느리고... 정말 우리들이 원수님께 얼마라도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겠다고 결심합니다.”

**태국에선 경찰에게 빨리 잡혀야**  
김성은 목사가, 라오스에서 메콩강을 건너 태국으로 향하는 탈북자들에게 전하는 말 속에는 그들의 탈북 여정의 긴박함이 담겨 있었다.

“내일 여기서 밤에 배를 타고 넘어갈 것이다. 태국에 가는 순간 여러분들 모든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지금까지 경찰을 피해왔다. 태국은 공산국가가 아니다. 태국에서는 경찰에게 빨리 잡혀야 한다. 누구를 만나든, 경찰들이 물려올 것이다. 검역을 필요 없다. 잡혀야 하니까.”

나레이션은 북한정권이 사용하는 김일성, 김정일의 신격화, 역사 조작에 대해 증언했다.

“북한 정권은 사실상 성경을 표절했다. 식민지 시절에 김일성이 무지개를 타고 이 산에서 저 산으

로 옮겨 다니며 일본 적들과 싸웠다고 가르쳤다. 한국전쟁 때에는 모래로 쌀을 만들고, 솔방울로 폭탄을 만들었으며, 나뭇잎 세 장 위에 서서 압록강을 건넜다고 했다. 김일성은 하나님이고, 김정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는 실제로는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백두산 통나무집에서 태어났다’고 그의 출생지를 조작했고, 그의 탄생을 아름다운 별과 쌍무지개로 고지했다고 날조했다. 그들은 이런 이미지를 독점하기 위해 성경을 금지했다.”

영화 상영에 이어, 탈북자 사역을 하는 단체들의 패널들이 이끄는 토의가 진행됐다. 팀창 교수가 진행자로 나섰으며, 메리 리, 해나 송, 김승은 목사, 탈북자, 써니 황이 패널로 참가했다. 메리리씨는, 14살 때 본,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북한을 위한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며, 북한선교를 돕는 비지니스 애즈 미션 사역을 했다고 밝혔다.

Liberty in North Korea(LiNK)의 CEO인 해나 송은 어린 시절, ‘홀로코스트’에 대해 가졌던 관심이 탈북 사역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내가 과연 홀로코스트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무엇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품게 되었고, 그 질문이 탈북자 사역으로 이끌었다.”

주디 한 기자 → 4면에서 계속

## 이찬수 목사 “형통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사랑의빛선교교회(윤대혁 목사)가 최근 부흥회를 개최한 가운데 지난 10일 3부 주일예배에서 설교한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이며,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하나님과 친밀감 회복’(출애굽기 33:1-6)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이牧사는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만 반복하는 것으로만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 새벽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친밀감을 쌓는 것이 두렵도록 소중하다”며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셉의 삶을 예로 들며 ‘형통’의 의미를 설명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상태”라며,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배다른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노예로 팔려갔으며, 역을하게 감옥에 갇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형통케 하셨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편안함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은 어려운 상황에서의 하나님과 임재와 동행”이라고 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요셉의 선택에 대해, “그 순간 불이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형통의 길이었다”고 덧붙였다.

이牧사는 자신의 이민 초기 경험도 나누면서, “20대 초반 시카고로 이민 갔을 때 외로움과 절망 속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해석해 주셨기에 그 고난이 형통이 될 수 있었다. 문제는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이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

루어진 감옥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은혜의 장소”라고 했다. 독수리가 상승기류 타듯 은혜의 바람 타고 올라가라 이어 “독수리가 상승기류를 타듯,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야 한다”며, “저는 1983년에 절망 속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70대의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실 최선의 은혜를 기다린다”고 했다.

출애굽기 33장에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과거의 죄와 결별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라는 의미라 보면 된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며, “팀 켈러 목사의 저서 ‘내가 만든 신’에서 보면, 우상은 금송아지나 형상이 아니라 지나친 자기 관심과 자기 배를 섬기는 태도”



사랑의빛선교교회가 이찬수 목사를 초청해 부흥회를 개최했다. ©기독일보

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현대 사회는 자아과잉과 불안으로 인해 수면제에 의존하는 시대이다. 미국 사람이 1년 동안 먹는 수면제를 1톤 트럭으로

나열하면 어마어마하다고 한다”라며, “우리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토마스 맹기자



#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FREE

##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폴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



SCAN ME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5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LA

213.500.8000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OC

714.702.0151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성전 이전 감사예배

국제 총회 교단 관계자들 참석  
어노인팅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도 통해 성령의 능력 받아야  
사랑과 기도로 엮어진 성도들의  
마음으로 세워진 성전

지난 8월 17일(주일) 남가주 어노인팅교회(남상권 목사)는 하버시티에 있는 새성전을 이전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국제총회 교단 관계자와 성도들이 함께해 본당을 가득 채웠다.

예배는 광기태 장로의 기도,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국제총회 증경총회장)의 말씀, 남상권 목사의 통성기도, 헌금, 어노인팅 EM 찬

양팀의 특송, 최홍주 목사(에브리데이교회 원로·국제총회 증경총회장)의 축사, 김재문 목사(사랑의빛선교회 원로)의 축도로 이어졌다.

한기홍 목사는 사도행전 3장 1-10절을 본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제가 92년도에 샌디에이고 갈보리 장로교회에 부임해 갔다.교인은 한 70명 정도 있었고 상처받은 사람들만 모여 있었다. 그런 가운데 샌디에이고 한인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때 당시에 교민이 8천명 정도 됐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해도 교인이 늘지 않았다.”



지난 8월 17일(주일) 남가주 어노인팅교회(남상권 목사)는 토렌스에서 하버시티로 성전을 이전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기독교일보

신실함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신뢰를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문 목사가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라” 권면했고, 남상권 목사가 “기도와 사랑, 선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는 30분 방송을 내보내는데 3천 달러가 들던 당시, 재정도 없지만 믿음으로 방송 설교를 내보내기 시작했고, 전단지를 사방에 붙였다. 12년 묵회하는데, 하나님께서 1,300명으로 부흥시켜주셨다.

그는 교회의 이름 ‘어노인팅’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한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야 하며, 기도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노인팅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다. 정말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한국교회의 유산, 새벽기도·통성기도·금식기도. 이어 받은 교회 되길

이어서, 은혜한인교회에 초청되어 말씀을 전했다던 미국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유산, 축복의 영성으로, ‘새벽기도’, ‘통성기도’, ‘금식기도’를 정확히 꼽았다며, “금식 기도를 하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기도시킬 때는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실 때 꼭 기도를 시키신다. 저는 그것을 수없이 경험했다.”

그는 은혜한인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있었지만, 기도로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다고 나누었다.

“은혜교회에 2004년도에 부임할 때 우리 김광신 목사님께서 대장암 수술을 받고 함양 중에 계셨다. 교인들이 뚝뚝 떨어져서 거의 천명 밑으로 내려갔다. 교회 빛은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교회 많은 선교지의 사역들은 펼쳐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할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다. 사방은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

그는 “지금까지 묵회하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 기도해야 열려진 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협력하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다”며, 모세가 힘이 빠졌을 때 아론과 훌이 그를 도와, ‘여호와 닛시’ 승리가 가능하게 했듯, 성도들이 남상권 목사의 팔을 올려 주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통성기도 시간에는 남상권 목사가 기도를 이끌며, 특별히 사우스베이 지역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최홍주 목사(에브리데이교회 원로)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확신과 신뢰를 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교회가

전을 나누고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가주 어노인팅교회는 2020년 2월 16일부터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했다.

남상권 목사는, 성전 이전에 대해, “코로나라는 광야 같은 시기에 시작된 작은 모임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며, “이번 예배를 준비하며 무엇보다 마음에 깊이 남은 것은 성도들의 헌신이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린 기도, 조용히 감당한 섬김,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웃음으로 함께해 온 사랑의 수고가 오늘의 자리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성전은 벽돌과 기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도로 엮어진 성도들의 마음 위에 세워져 있다”며, “성전 이전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남가주 어노인팅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고, 찾아가고, 위로하며, 결국 그 사람을 제자 삼는 교회로 서기를 소망한다”고 비전을 나누었다.

조셉 리 기자  
예배 및 교회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30분  
2부 오전 10시 30분  
수요예배·금요예배: 저녁 7시 30분  
새벽예배: 화~금 오전 5시 30분  
교회 주소: 24404 S Vermont Ave., Suite 201, Harbor City, CA 90710  
전화: (213) 800-3651  
웹사이트: anointingchurch.org



## 8.15 한반도를 위한 기도 행사

→ 3면 기사 <엄마 거짓말하지 마>에 이어서 “LiNK는 북한 난민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탈북자의 남한과 미국 정착을 돕고, 영어 교육 등 정착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 어떻게 북한 사람들에게 정보와 기술을 전해줄 것인지, 이를 통해 북한 외부의 현실을 그들에게 알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승은 목사는 “7남매의 장남으로 가난하게 자라 13세 때 태평양 어선에 나가야 했다”며,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고백했다. 27년 전 북한·중국 국경지대에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북한 동포를 보며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서, 탈북자 사역의 소명을 받았다고 나눴다.

이날 패널 토의에는 탈북자의 간증도 포함됐다. 중국에 왔다가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지만, 복음을 전하다 결국 북한 당국에 잡혀, 10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그는, 살아 남기 위해 쥐와 뱀, 심지어 소똥에 박힌 옥수수 알갱이까지 먹어야 했던 북한 감옥 속 현실을 증언하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살아서 나오게 하셨다”고 간증했다.

오후 7시 이후, 시작된 비와이(BewhY) 콘서트에는 많은 한인 2세 학생들과 타인종 학생들이 함께했다.



##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HYUNDAI GETAWAY SALES EVENT**

**NEW 2025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5 HYUNDAI Elantra Hybrid**  
Blue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하얀여름 쿨한세일**

**0%**

APR Financing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NEW 2025 HYUNDAI Kona SE**

**NEW 2025 HYUNDAI Ioniq 6 Limited RWD**

**NEW 2025 HYUNDAI Ioniq 5 Limited RWD**

**함께 일할 세일즈맨 구합니다!**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Frank Kim 323.823.0682	 Sean Kim 213.605.2886	 Jae Lee 714.319.4611
--	---	---	--	---	---	--	---	---

**한인 메카닉 서비스**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당신을  
진료실에  
온기를  
채우는  
모십니다

## PRIMARY CARE PHYSICIAN 모집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과 대우 보장

근무 지역 LA / ORANGE COUNTY

CONTACT ☎ (760) 927-0927

✉ TONY@POPMSO.COM

🌐 WWW.CENTERIPA.COM

인터뷰 희망 시 연락 바랍니다





# “中,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하라”

##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기자회견 갖고 촉구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에스더기도운동 등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범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18일 오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에 대한 인권 침해는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불법 경제 이주자’로 규정하며,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는 유엔 난민협약 및 고문방지협약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라며 “북송된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고문, 강제노동, 성폭력, 처형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인 2023년 10월 9일 약 500명 이상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했다. 이들 중 다수가 여성으로, 북송 후 강제노동수용소 구금, 고문, 성폭력, 처형 등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했다.

또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24년 4월 26일 약 60명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했다고 보고했다. 우한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북중 국경봉쇄가 해제된 2023년 8월 이후 중국 정부는 약 670여 명의 탈북민을 북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또한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는 인신매매와 강제 결혼이다. 중국 내 탈북민, 특히 여성들은 법적 신분이 없어 인신매매와 강제 결혼에 취약하다”며 “중국 동북 3성(지린, 랴오닝, 헤이룽장)에서는 탈북 여성을 중국 남성에게 판매하는 인신매매 조직이 활개 치고 있다. 국제인권연맹(FIDH)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민은 약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 중 대부분이 여성이다. 이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인신매매, 강제 결혼, 성착취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한 또 다른 인권침해는 강제노동과 착취이다. 탈북민들은 중국 내에서 신분이 불안정해 강제 노동에 취약하다. 미국 국무부의 2022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탈북 여성들은 농업, 가사 노동, 식당, 노래방, 공장 등에서 강제 노동에 내몰린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강제 북송을 피하기 위해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며, 노동 착취와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게다가 중국 내 탈북민들은 체포 후 구금 시설에서 비인도적 대우를 받는다”며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구금된 탈북민들은 고문, 폭행, 강제 자백, 음식 및 물 부족 등의 학대를 경험하고 특히 여성 탈북민들은 나체 수색, 성폭력, 강제 낙태 등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했다.

또한 “중국의 만행은 이에서 끝나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들이 중국 베이징에 소재한 유엔난민기구(UNHCR)와 접촉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2023년 9월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북송된 탈북민이 고문을 받는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북한 내 인권 침해가 고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이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와 상충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국민연합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강제실종실무그룹은 중국의 강제 북송을 비판하며, 2023년 7월 약 2,000명의 탈북민이 중

국에 구금되어 북송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며 “2024년 1월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의 중국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탈북민 보호를 촉구하며, 중국에 난민법 제정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권고했다. 이는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탈북민 문제를 공식 제기한 첫 사례이다. 또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앰네스티, 국제인권연맹 등은 중국의 탈북민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난민 지위 인정과 안전한 제3국 이동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들은 중국 정부에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라 △강제 구금된 2000여 명의 탈북민을 모두 석방하라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탈북민이 제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들을 중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과 인권이사국의 지위에서 사퇴하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 선, 광복 80주년 기념 81.5km 러닝 ‘815런’ 성공

최다 1만 9,450명 참여, 23억여 원 모금

가수 선 씨가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와 광복 80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부 마라톤 캠페인 ‘2025 815런’에서 마라톤(42.195km)의 2배에 달하는 81.5km를 완주했다.

캠페인 홍보대사인 가수 선 씨는 무더운 날씨에도 81.5km를 7시간 50분 21초에 완주해냈다. 45명의 페이스는 5인 1조로 나뉘어 선과 함께 발을 맞췄다. 이영표, 윤세아, 권은주, 진선규, 고한민, 조원희, 정지현, 임세미, 최시원, 임시완, 이시우, 이연진 등 유명 셀럽들이 함께하며 힘을 보탰다. 선 씨는 6년 연속으로 81.5km가 아닌 81.5km를 달렸다.

6회째를 맞은 ‘815런’은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잘 될 거야, 대한민국!’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이다.

참가비는 전액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되



선 씨가 81.5km를 완주하는 모습. ◎한국해비타트

며, 올해는 역대 최다인 19,450명(오프라인 4,000명, 베투얼 15,450명)이 참여했다. 2025 815런은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베투얼 런’과 광복절 당일인 8월 15일 서울 삼암 월드컵공원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런’으로 나뉘어 열렸다.

베투얼 런 참가자들은 전국 각지

에서 일정 거리(3.1km / 4.5km / 8.15km) 중 원하는 코스를 선택해 자유롭게 달린 뒤, 네이버 해피빈과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통해 러닝을 인증했다. 주점을 통해 최대 8만 1,500원의 네이버페이가 제공되는 특별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광복절 당일 오후, 삼암 월드컵공

원에서 열린 오프라인 런에는 4,000명의 러너가 함께 8.15km를 달렸고, 선·소향 등이 참여한 특별 콘서트도 마련됐다.

참가비 전액과 110여 개 기업의 후원을 더해 총 23억 4,850만 6,344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수익금은 전액 독립유공자 후손 가정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사용된다.

선 씨는 “우리 중 누군가는 독립유공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감사로 집을 지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815런이다. 마음을 함께 나눠준 모든 러너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815런을 통해 국내외에서 5만여 명의 러너, 260명의 페이스, 383개 후원기업이 함께해 85억여 원의 기금을 마련했으며, 모인 후원금으로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후손 19가정에 보금자리를 헌정, 20-22번째 집도 짓고

있다. 다음은 후원 참여 기업 명단.

미라클365, 노스페이스, 풀림무약, 가히, 파라다이스, 경남제약, 동서식품, 켄거루크루, 삼양통상, ㈜미래컴퍼니, 삼정사랑나눔회, 크루고스트, 법무법인 정의, ㈜삼기, 세아그룹, 다산구조기술, 해일리온코리아, GS벤처스, GS파워, GS건설, GS에너지, GS리테일, 한국앤컴퍼니㈜, 삼성헬스, 오리엔탈쉬핑, 크래프트, 크리에이티브트, 효성첨단소재, ㈜독립문, 군산래저산업, 삼호산업, ㈜엘엔에프, 삼양인터내셔널, 스튜디오에피소드, 한독모터스, 퍼시스그룹, 모투스컴퍼니, 코오롱, ㈜아론, (재)게임인재단, 아우토슈타트, YIDO, LH, 아주, 진인프라, (주)LIG, 명성라이픽스, LIG넥스원, LIG시스템, LIG Huseco, 이노와이어리스, 베디베로, 트레스지파트너스, 예일헬스케어 등.

신미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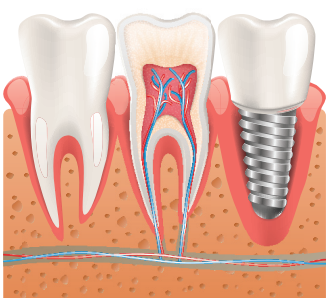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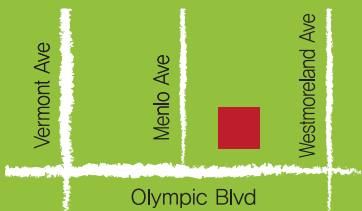
###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 S 사랑하는 M 마음으로 G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이 No.1 인 이유는  
늘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에게 No.1 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No.1 은 당신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 국제 엠네스티, 리비아 기독교인 11명 수감에 강력 반발

리비아에서 11명의 기독교인이 불공정한 재판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자 국제 인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국제엠네스티는 이번 재판을 “심각하게 결함이 있는 불공정한 절차”라며 즉각적인 판결 취소를 요구했다. 지난 4월 15일 트리폴리 법원은 리비아 남성 9명, 여성 1명, 파키스탄인 1명에게 징역 3년에서 15년에 이르는 형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이슬람 모독 ▲인터넷을 통한 종교적 신성 모독 ▲금지된 단체 설립 시도 ▲헌법 기본 원칙 변경 선동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엠네스티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 검토와 증인 심문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출석만 확인하고 변호인들의 석방 요청을 기각하는 절차만 반복했다”며 “내무안보국(ISA)의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판결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독교인들은 2023년 3월 트리폴리 내무안보국에 의해 선교 활동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함께 구금됐던 미국인 2명은 며칠 만에 석방됐지만, 나머지는 장기간 고문·임의구금·변호인 접견 거부·강요된 자백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ISA는 같은 해 4월 자백 장면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공식 채널에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처음에는 ‘배교죄’를 적용했으나, 이는 리비아 형법 291조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조항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취하됐다. 그럼에도 검찰은 여전히 ‘금지된 기독교 단체 설립’ 등 다른 혐의를 유지했다.

특히 파키스탄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리비아에 단체를 세우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이미 1992년 가족과 함께 이주해 30년 이상 현지에서 살아온 인물이었다.

수감자 가족들의 고통도 극심하다. 한 피고인의 아내는 “남편은 체포 직후부터 신체적·정신적 고문을 당했다”며 “5개월 동안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어 매일 기적을 기다렸다”고 호소했다. 그녀의 딸은 올해 네 살이 되며, 사진으로만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다. 엠네스티는 리비아 당국에 대해 ISA가 저지른 고문·강제실종·임의구금 혐의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하며, “평화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이들의 유죄 판결과 형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분열과 불안정이 지속되는 리비아에서 기독교 소수 집단이 직면한 열악한 현실을 드러낸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는 리비아를 2025년 기독교 박해 순위에서 세계 4위로 꼽았다.

이미경 기자

# 진보적 기독교의 위험, 문화에 굴복하는 가짜 복음



아치 케네디. ©Christian Post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아치 케네디의 기고글인 ‘이것이야말로 진보적 기독교가 지닌 가장 큰 위험이다’(This is the real danger of Progressive Christianity)를 17일(현지시간) 게재했다.

아치 케네디는 신앙과 문화의 교차점에 초점을 맞춘 기독교 평론가이자 블로거, 연사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최근 베일러대학교가 다양성·평형성·포용성(DEI) 활동과 LGBTQ 이니셔티브와 연결된 165만 달러 규모의 LGBTQ+ 보조금을 반환하자, 기독교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자들의 압박 앞에서 한 기독교 기관이 물러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엘리 베스 스텐키(Allie Beth Stuckey) 등 여러 사람이 지적했듯, 이는 영적 확신에서 비롯된 승리가 아니었다. 계산된 후퇴였으며, 단순한 한 건의 보조금 문제를 넘어 훨씬 더 깊은 문제를 드러냈다. 그것은 바로 진보적 기독교(Progressive Christianity)라는 점점 커져가는 위험이었다.

이 운동은 단순한 신학적 변화가 아니다. 영적 위조품이다. 기독교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성경의 권위를 버리고 세상의 인정을 선택한다. 진보적 기독교는 내부에서 속인다.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한다(디모데후서 3:5). 결국 사람들의 구원을 위협한다.

## 진보적 기독교란 무엇인가?

진보적 기독교는 단순히 “마음이 열린” 버전의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신앙을 완전히 재정의하는 것이다. 진보적 신학은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을 거부하고, 죄를 인간 경험의 렌즈로 재해석하며, 거룩과 회개보다 사랑과 포용을 강조한다. 또한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관점에서 진리는 유동적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협상 가능하다. 예수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부르시는 구주(누가복음 9:23)가 아니라 도덕 교사 정도로 축소된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속임수다.

최승연 기자

## 왜 진보적 기독교가 무신론보다 더 위험한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필자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 무신론자는 불신을 숨기지 않는다. 그들의 입장은 명확하다. 그러나 진보적 기독교인은 기독교의 언어, 성경 구절, 감정을 사용해 성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가르침을 정당화한다. 죄를 재정의하고, 성경이 회개하라 명하는 삶의 방식을 긍정하며, 구원을 막연한 자기 사랑의 메시지로 축소한다.

그 결과 사람들을 영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길로 인도하지만, 결국 그리스도와 분리된 길에 서게 한다. 예수께서는 이런 속임수에 대해 경고하셨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마태복음 7:15). 진보적 기독교는 이 ‘양의 옷’을 잘 걸친다. 그러나 사람들을 구원 없는 길로 이끈다.

## 베일러 사태는 증상일 뿐이다

베일러대학교의 보조금 논란은 더 큰 패턴 속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미국의 여러 기독교 기관이 신앙의 외형은 유지하면서 점점 세상 문화에 동화되고 있다. 많은 교회와 대학은 순종의 대가 없는 ‘기독교 브랜드’만 원한다.

드라마 <더 초즌(The Chosen)>이 죄를 긍정하는 집단과 손잡거나, 일부 신학교들이 신학적 기준을 은밀히 바꾸는 것 모두 같은 타협의 일환이다. 이는 특정 사안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적 지향, 성별, 결혼, 낙태, 복음의 유일성 등 이 운동은 문화에 맞추어 신앙을 재조정한다. 그러나 성경적 신앙은 문화를 회개로 부르고 그리스도를 따라라 명한다.

## 연민과 확신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고백하자면, 필자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여기면서도 동시에 동성애자로 정체화하는 친구들이 많다. 심지어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이들도 있다. 그들은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최소한 자신들은 그렇게 믿는다. 그러나 “사랑스럽고 독점적 관계”라면 하나님이 동성 간 관계도 긍정하신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왔다.

필자도 과거에 그와 같은 생각을 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았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우리의 진정성은 구원이 되지 않는다. 오직 예수께서 구원이 되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머무르도록 두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와 거룩, 변화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은혜다.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 606-2345, (424) 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영혼의 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son)  
T. (213) 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년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션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세울 발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중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아침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아침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교동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 소양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11:30 교육관 1층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 466-1234 Email: om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 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사역 AM 1560  
주일 아침 6시  
주일 저녁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일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 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종교동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한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묘미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cgc.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FCO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 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찬양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학창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영아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섬김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월-토) 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5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 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5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금강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美 법원, 오클라호마주의 ‘미성년자 성전환수술 금지법’ 유지

©Unsplash/Tim Mossholder

미국 제10연방순회합소법원이 미성년자의 ‘신체 변형 성전환 수술’과 ‘사춘기 차단 약물 투여’를 금지한 오클라호마주의 법률을 지지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3대 0으로 내려진 이 판결에서 법원은 트랜스젠더 청소년과 의사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가처분은 성별 불쾌감을 겪는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시술과 약물 투여를 허용하도록 2023년 제정된 오클라호마주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는 것이었다.

원고 측은 이 법이 헌법의 적법절차조항과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엘 카슨(Joel Carson) 순회판사는 다수 의견에서 7주 전 미 연방대법원이 테네시주의 유사한 법률(SB1)을 합헌으로 인정한 ‘미국 대 스크르메티’(United States v. Skrmetti) 판결을 인용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별 불쾌감을 치료하기 위해 사춘기 억제제와 호르몬 요법을 금지하는 테네시주법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카슨 판사는 “SB1은 의료 제공자가 미성년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특정 의료 목적으로 사춘기 억제제나 호르몬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성차별 주장 역시 기각했다. 이 소송에 피고로 참여한 젠터너 드러먼드(Gentner Drummond) 오클

라호마주 법무장관(공화당)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수년간 급진 좌파 활동가들이 미성년자 ‘성전환’ 절차라는 거짓말을 퍼뜨려 왔다”며 “이번 판결은 진실을 인정하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싸움에서 승리해 자랑스롭다. 이는 아이들과 헌법, 그리고 상식의 승리”라고 덧붙였다.

오클라호마주는 현재 미성년자의 성전환 시술을 전면 또는 일부 금지한 미국 27개 주 중 하나다. 금지 범위에는 사춘기 억제제, 이성호르몬 투여, 신체 변형 수술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법안들은 장기적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하고 있다.

미국소아과학회(The American College of Pediatricians, ACP)는 사춘기 억제제가 골다공증, 기분 장애, 발작, 인지 장애, 불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성호르몬은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병, 혈전, 암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은 테네시주법을 합헌으로 인정한 지난 6월 판결에서 “미성년자를 신체적·정서적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강력한 주의 이익이 있다”고 명시했다. 그는 “모든 성별의 미성년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춘기 억제제나 호르몬을 투여받을 수 있지만, 성별 불쾌감 치료 목적으로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신미셸 기자

美 학교들, 학생들 휴대전화 사용 제한 강화

©Pixabay

미국 텍사스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학교들이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Out of Sight’(보이지 않게) 정책을 도입하며,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기기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텍사스의 알링턴, 갈랜드, 프리스코, 포트워스 등 주요 학군은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 뿐 아니라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도 휴대폰을 꺼서 가방이나 사물함에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휴대전화를 단순히 사용 금지하는 것을 넘어, 아예 눈에 띄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텍사스의 그레 애벗(Greg Abbott) 주지사는 지난 6월, 모든 공립학교가 9월 18일까지 개인 기기 사용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하원법안 1481(HB1481)에 서명했다. 그레이프라인-콜리빌 학군의 커리큘럼 책임자 케일리 맥멀린(Kalee McMullen)은 “휴대전화 사라지자 학생들의 몰입도가 높아지고 행동 문제도 줄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자녀와 연락이 필요한 경우 학교 사무실을 통해 연락하도록 안내받고 있다.

텍사스 외에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LA 통합교육구(LAUSD)가 스마트워치와 이어폰까지 포함한 휴대기기 사용 금지 정책을 확대했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폰 프리 스쿨 법안’(Phone-Free School Act)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

라 모든 공립학교는 2026년 7월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학교가 학생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불만을 표했으며, 오히려 몰래 사용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의 뇌는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과도한 디지털 노출은 자기조절 능력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 미국 의학 학술지 JAMA 소아과(JAMA Pediatrics)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4,2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1.3%가 중독 수준의 소셜미디어 사용 습관을 보였으며, 24.6%는 중독 수준의 휴대전화 사용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은 우울감, 불안, 자살 충동 등 정신 건강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퓨리서치연구소(Pew Research Center)의 별도 조사에서는 10대 청소년의 96%가 매일 온라인에 접속하며, 이 중 거의 절반은 ‘거의 항상’ 온라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과 함께, 가정과 학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건강한 사용 습관 형성, 심리적 지원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경 기자



# 英 대학서 사라지는 ‘신학’ “지금도 보호할 마지막 기회” 경고



옥스포드대학교 전경. ©Unsplash/Sidharth Bhatia

영국에서 신학과 종교학을 가르치는 대학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해당 학문 분야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종교 지도자와 학자들은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학에서 신학과 종교학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싱크탱크 테오스(Theos)가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현재 영국과 웨일스에서 신학과 종교학 학사 학위를 제공하는 고등교육 기관은 21곳에 불과하다. 이는 역사학(90곳), 음악학(101곳)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서한은 “신학은 공동체의 지적·윤리적·문화적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세계 문화와 전통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을 기르고, 복잡한 경전과 교감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축소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점점 더 양극화되는 사회에서 윤리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

춘 졸업생의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교 교육(RE)의 감소 추세도 지적됐다. 현재 종교 교육 수업의 약 절반이 비전공 교사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연수 신입생 가운데 신학 및 종교학 학위 소지자는 5분의 1에 불과하다.

서한은 또 “미래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며 다문화화 될 것이다. 우리는 도덕적·윤리적·영적 과제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신학과 종교학은 필수적인 도구”라고 밝혔다. 이 서한에는 테오스 이사 차인 맥도날드(Chine McDonald), 캔터베리 전 대주교 로완 윌리엄스(Rowan Williams), 크리스천에이드 CEO 패트릭 와트(Patrick Watt), 종교 미디어센터 회장 마이클 와켈린(Michael Wakelin), 자유교회 감독 테사 헨리-로빈슨(Tessa Henry-Robinson) 목사 등이 서명했다. 서한은 A레벨 결과 발표 시점에 맞춰 공개됐다.

이미경 기자

# NFL 뉴욕 제츠 쿼터백 저스틴 필즈 “성경 읽기에 몰두”



뉴욕 제츠의 쿼터백 저스틴 필즈 선수가 최근 훈련 캠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신앙 여정을 고백하며 성경 읽기가 삶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Screenshot/YouTube/syntv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NFL 뉴욕 제츠의 쿼터백 저스틴 필즈 선수가 최근 훈련 캠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신앙 여정을 고백하며 성경 읽기가 삶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필즈는 “매일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이를 일상에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깊어지고 있다”며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와 동료, 코치들의 신뢰가 내 전부다”라며, 신앙의 변화가 인생의 관점을 바꾸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경을 매일 묵상하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 삶을 다듬어간다고 말했다. 필즈는 “솔직히 성경을 손에 드는 것이 중독처럼 느껴진다. 매일 새로운 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하이오주립대 시절 빅텐 공격 최우수 선수상을 두 차례 수상한 필즈는 지난 3월 제츠와 2년 4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그는 신앙이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잠언을 성경 읽기의 출발점으로 추천하며 “누구든 조금이라도 읽기 시작하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의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가슴에 문신으로 새겼으며, 매일 아침 성경 오픈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필즈의 신앙 고백은 NFL 무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선수들의 공개적인 믿음 고백 흐름과 맞닿아 있다. 지난 3월, 탬

파베이 버커니어스의 쿼터백 베이커 메이필드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후 예수님을 붙잡게 됐다”며, 신앙을 통해 경기 성적이 아닌 인격과 공동체를 세우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다. 이제는 필드 위의 기록보다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끄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신인 러닝백 칼렘 존슨은 지난 5월 세례를 받은 후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고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운동선수로서 늘 경쟁과 훈련에 매달려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기며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같은 달 대학 소프트볼 챔피언십을 앞둔 그는 6개 학교에서 모인 선수와 코치 70여 명이 호텔 수영장에 모여 26명의 선수가 세례를 받는 장면도 연출해 화제가 되었다. 전 NFL 선수이자 현재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벤자민 왓슨은 이러한 흐름에 대해 “선수들의 공개 신앙 고백은 고무적이지만 동시에 책임이 따른다”며 “갑작스러운 주목 속에서 성숙한 제자훈련 없이 무대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 진정한 성장은 은혜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의 건전한 비판과 사랑의 권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P는 NFL 무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신앙 고백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스포츠 세계 속에서 믿음을 나누고 공동체적 가치를 실천하는 하나의 흐름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이고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카데미)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들레)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침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금) 오전 6:00(토)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일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아침)예배 오후 7:30 한아침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기도회 월요일 5:30/토요일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상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침례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기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오전 9:00,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조종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오후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o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3  
E-Mail: inexcel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비초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축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포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각종 보험 취급**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최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교통사고 전문**  
배배는 숙련제거와  
먹으면서 채증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부터 \$7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차림 오반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 안나장학회, 창립 42주년 기념 장학금 수여식

신학대학원, 대학생 24명에 장학금 전달

지난 8월 16일, 안나장학회 창립 42주년을 맞아 장학금 수여식이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 친교실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풀러 신학교,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 칼빈대학교 등의 신학대학원과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4명이 장학생으로 선정됐다.

이날 수여식은 박현옥 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정숙 회장의 환영 인사로 시작됐다.

정 회장은 “작은 빛이 8월을 밝히듯, 오늘 우리가 밝힌 작은 소망이 이 세상 모두의 기쁨과 빛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믿음의 젊은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라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윤성환 목사가 기도하고, 박은성 목사가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그는 “장학금을 받은 자는 받은 빛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며, “세상적으로 보면 장학금은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지만, 신앙적으로는 ‘빛’을 받아 ‘빛’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장학금은 내가 받



지난 8월 16일,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 친교실에서 안나장학회 창립 42주년을 기념 및 장학금 수여식이 은혜 가운데 열렸다.

은 빛을 후대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안나장학회의 참된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상명 총장(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 이경식 부총장(클레어몬트 신학교), 김창환 학장(풀러 신학교)이 차례로 축하했으며, 박현옥 위원장의 장학 보고 후 박은성 목사가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날 간증을 전한 임주디 학생은 “장학금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었다”며 “네 걸음을 보고 있다”는,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을 수 있었고, 정말 힘들었지만 학업을 이어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상담심리학을 통해 상

처 임은 사람들에게 회복을 전하고 싶다. 오늘 제가 받은 힘과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안나장학회는 1983년 전교인 여름수양회가 열린 CCC 수양관에서 김성갑 권사와 20여 명의 권사들이 모여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사랑을 전하자”는 뜻으로 시작됐다.

이후 1988년 정식으로 연방정부에 등록을 마쳤다. 42년간 수많은 학생들이 이 장학금을 통해 학업을 이어가며 신앙 안에서 성장했다.

장학회 측은, 앞으로도 믿음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선 기자

→ 1면 기사 <美 국무부>에 이어서 장애인을 강제 불임시키는 사례 역시 보고됐다.

북한 주민들은 강제 노동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돼 있다. 독립노조나 단체 결성은 불가능하며, 전 노동자는 국가 통제 아래 장시간 노동과 정치 학습을 강요받는다. 임금 체불, 현물 지급 사례가 다수 보고됐고, 아동과 청소년이 건설·농업 현장에 강제 동원되는 경우도 있었다.

구금 시설은 약 206곳으로 추정되며, 이들 시설에서는 구타, 전기고문, 물고문, 성폭력 등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성 수감자에 대한 성폭행, 강제 낙태, 성적 모욕 등 체계적인 폭력도 존재했다.

또한 북한은 남한의 문화, 언어, 미디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법률을 강화했다. 남한 말투를 사용하거나 노래를 부를 경우 교화노동 2년, 남한 영상 소지 시 교화노동 5~15년, 유포 시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했다. 해외 방송 청취나 외부 정보 유입도 철저히 차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형한 사례도 보

고됐다.

외교관, 언론인, 인권단체의 현장 접근은 전면 차단됐으며, 코로나19 국경 봉쇄도 장기화 이어졌다. 신뢰할 수 있는 현장 정보 수집이 어려워 탈북민 증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관련 분량은 작년 53쪽에서 23~25쪽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까지 포함됐던 북한 정치 체제 비판, 부패와 선거 불공정성에 대한 핵심 내용은 삭제됐으며, 표현과 언론의 자유 제한, 그리고 사형에 대한 구체적 사례도 일부 축소됐다.

특히 종교 자유 침해의 경우 전년 보고서에는 기독교 및 기타 종교 활동 금지 사례가 상세히 기술됐으나, 올해는 간략한 언급만 있고 세부 사례는 삭제됐다. 구금, 고문, 성폭력 관련 내용도 일부 수치와 증언 사례가 줄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인권단체와 국제 인권 전문가들이 ‘중요한 인권 문제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축소됐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NK뉴스는 “보

고서가 여전히 폭력, 탄압, 고문, 강제 실종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언급하고 있지만, 정치적 맥락 없이 ‘현장 중심’으로만 다뤘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 미국 지부 관계자는 “보고서 축소는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편집”이라며 “투명하고 포괄적인 기록 없이 인권은 지켜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고서가 간소화되며 인권 실태의 상당 부분이 정치적 프레임으로 재구성됐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 보고서가 주요 우방국에 대한 비판을 약화시켰다며 정치적 편향 우려를 제기했다.

국무부는 다음 날인 13일 논평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라며 “불법 처형, 고문, 강제 노동, 표현과 종교의 자유 제한 등 인권 침해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북한 인권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필요할 경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케어 전문 Agent

# Annie Moon

Lic# OB51378 **문혜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e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강준민 칼럼

감사의 근육을 키우는 지혜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근육 부자가 진짜 부자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육은 노년의 통장이라고 합니다. 근육을 잘 쌓아두면 인생 후반기까지 삶의 질을 지켜주는 자산이 됩니다.

비록 근육은 많지 않지만, 그 중요성을 삶 속에서 배워가고 있기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의사 선생님들은 근육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근육은 힘의 원천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을 세우고, 움직이게 하는 기초 에너지의 공급원입니다. 강한 근육은 관절을 안정시켜 부상 위험을 낮춥니다. 근력이 좋아지면 속도, 힘, 지구력이 향상됩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지방 연소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중요한 까닭은 근육을 통해 유연성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딱딱하면 부러지기 쉽습니다. 유연하고 부드러운수록 좋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유연함 속에 있습니다. 또한 유연함이 강함을 지탱합니다. 저는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좋아합니다. 살아 약동하는 것은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다. 겨울은 차갑고 경직되지만, 봄은 따뜻하고 유연하여 생명을 돋우게 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만물이 약동합니다. 꽃이 만발하는 것을 봅니다.

근육이 중요한 까닭은 근육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근육과 견딤은 함께 동행하는 친구입니다. 견딤은 지구력을 의미합니다.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은 근육과 더불어 지구력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것은 견딤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고비를 넘기는 데 필요한 것이 견딤입니다. 힘든 순간을 견딜 때 근육은 더욱 강화됩니다. 견딤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맺게 됩니다.

견딤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수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갈등을 통해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갈등을 통해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갈등을 통해 사랑의 기술을 더하게 됩니다. 소통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 모든 것을 참으며 ...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전 13:4, 7). 완만한 결혼 생활과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비밀은 오래 참고 견디는 데 있습니다.

몸의 근육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근육도 중요합니다. 《인생 수업》이란 주제

로 말씀을 전하는 중에 「감사 수업」은 인생 수업의 정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수업을 통해 어른으로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비밀입니다. 자족의 비밀입니다. 감사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감사는 고난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합니다. 감사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지혜입니다. 감사는 역전의 능력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시편 50:23). 감사는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감사 수업을 받습니다. 감사의 유익에 대해 배웁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살전 5:18)입니다. 범사 감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반면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범사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첫째, 범사 감사를 위해 생각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감사하다(thank)”의 단어의 어원은 “생각하다(think)”에서 왔습니다. 생각을 깊이 할 줄 알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범사 감사를 위해 안목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 제목을 찾아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좋은 것을 찾아냅니다. 좋은 것을 찾아내는 안목의 근육을 키우면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그 이유는 좋은 것들이 계속 눈에 들

어오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소에서도 어디를 보며, 무엇을 보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창밖에 있는 진흙땅을 보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한 사람은 창밖에 있는 하늘과 밤의 별을 보며 시를 썼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있다고 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게 되면 고난 중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범사 감사를 위해 감사를 표현하는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조금 어색해도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종은 울리기까지 종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이 존재하는 이유는 종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종이 종소리를 내듯이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가 선물해 주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의 근육은 생각의 근육, 안목의 근육, 표현의 근육을 통해 길러집니다. 이 세 가지 훈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 가게 됩니다. 감사의 근육을 키우는 길은 날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감사 일기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억하는 믿음의 기록입니다. 작은 감사를 적는 일이 큰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감사 내 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날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십시오. 그때 감사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감사의 입술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유철 칼럼

비판은 하지 말고 분별은 하라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후 연결하여 분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마7장 6절) “거룩한 것, 너희 진주”는 하나님께 속한 진리나 복음,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개와 돼지”는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영적인 가치

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벧후 2:22)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성경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 말며”,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분별하지 못하고 전하면, 그 다음은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는 것 정도로 그치지 않고 돌이켜 전하는 자를 반드시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일지라도, 개와 돼지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은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 상대를 정죄하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비판의 대부분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판단하므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는 위선적인 태도로 목적은 사랑이 아닌 자기 의나 교만입니다. 비판의 대표적인 부류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자

를 고치거나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어떻게 합니까? 병자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고 오직 자기들의 의를 위해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거기에 비해 “분별”은 기준이 개인적인 감정이 나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분별하는 이유는 진리를 지키거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일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로 인도하는 데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 진리를 어지럽히는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왜곡된 거짓 교훈임을 잘 분별하였고, 돌이키지 않을 때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언제나 명확한 복음의 기준과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분별이었고 예수님 사랑에서 비롯된 강한 책망이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져서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려는 영적공격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딤후4:3-4)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마 24:4)고 하였고, 성경은 “더욱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벧전5:8)고 말씀합니다. 깨어있는 것은 천지는 없어져도 일정일확도 변하지 않는 말씀 앞에서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멕시코 4차 단기선교와 Back to School 특새와 말레이시아에서의 열방전 중국사역자수련회와 성경암송대회와 선교사가족 초청대회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살롬!

2025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SINCE 1977**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교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9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8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a.auraheli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허복**

- MATS 선교학 석사
- Th.M 신학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9547 EXT.# 112/admin.kor@itsla.edu





함께 미스터트롯3 LA 공연을 즐겨보세요.

2025. 8. 24 (일)

2:00PM, 6:30PM - 2회 공연

WILSHIRE EBELL THEATRE 월셔 이벨 극장

티켓  
예약

chosunticket.com



ChosunDaily LA  
미주조선일보

티켓 문의 (213)459-6800 | (213)315-5177  
4221 Wilshire Blvd. #224, Los Angeles, CA 90010



TITLE SPONSOR



SPONSOR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자연요법, 대체 의학, 예방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 3. 땅에 어싱한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약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부황 20회 (혈액순환)
- 훈육 1시간
- 땀 10회 (체온상승)
- 마사지 30회
- 피부 스킨링 60회 (리프팅)

테라 P90의 효과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피로에 도움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면역건강 보조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신진대사에 도움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시력향상에 도움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폐와 신장기능강화에 도움
- 수면장애에 도움
- 지방연소에 도움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을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은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을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은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을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을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을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을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오후 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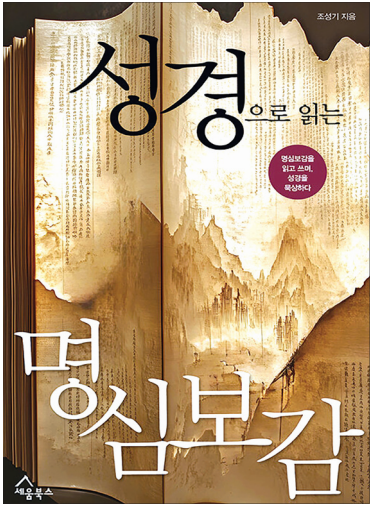
3055 Wilshire Blvd #480 .,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즈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인의예지와 십자가

## 명심보감을 읽고 쓰며 성경을 묵상하다



성경으로 읽는 명심보감

조성기 | 세움북스  
312쪽 | 18,000원

‘명심보감’ 과 ‘성경’ 을  
관통하는  
지혜의 샘물을 길다!

신앙과 삶의  
깊은 지혜를 시적 절제의  
검박한 언어로 쓴 책

우리 마음을  
맑게 씻어 주고,  
우리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는 책

설교와 묵상,  
다음 세대의 한자 공부,  
신앙 교육에  
유익한 도구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 시작된 종교개혁은 서구 기독교에 큰 반향을 안겨 주었다. 2,000년 가까이 서구 세계를 지배했던 기독교적 세계관과 교회를 통한 통치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종교개혁 이후 로마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된 개혁신교회는 존 칼빈과 츠빙글리 같은 또 다른 개혁자를 통해 잉글랜드와 프랑스, 스코틀랜드, 네덜란드로 확대됐고, 그들은 청교도로, 개혁신교로, 장로교회로 불리면서 새로운 교리 체계 확립에 힘을 썼다.

이에 반해 로마가톨릭은 대항해 시대 이후 제국주의 국가들이 동북 아시아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할 때, 새로운 세계로 선교 확장에 힘을 썼다. 특히 중국으로 눈을 돌려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최초로 로마가톨릭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마테오 리치(Matteo Ricci)였다. 그는 로마가톨릭 예수회 선교사로서, 중국으로 입국해 ‘보유론’ 입장으로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전했다. ‘보유론’이란, 중국이 수천년 동안 갖고 있던 유교적 전통을 완전하게 배척하지 않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기독교가 가진 구원의 교리를 전하려는 태도이다.

이런 입장은 개혁신교회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으로 눈을 돌려 최초로 중국에 입국한 런던선교회 소속 로버트 모리스 선교사(Robert Morrison)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 이후 런던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파송되면서 가진 입장은 보유론의 입장에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특히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지속됐다. 마테오 리치가 하나님을 천주(天主)의 개념으로 번역했다면, 개혁신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상제(上帝)로 번역했다. 중국 내에 있는 신들을 중국에서는 상제로 불렀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중국인들에게 소개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성경으로 읽는 명심보감』이란 책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성경 안에 다양하게 나와 있는 개념을 명심보감(明心寶鑑)에 빗대 기록한 책이다. 책의 저자인 조성기 목사는 『명심보감』에 나타난 여러 말씀 중 가장 인상적이고, 현대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을 골라, 인문학적 사유의 문을 열고자 했다고 저술 목적을 기록하고 있다.

또 『명심보감』이 지혜의 책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한 성경의 잠언과 연결해 저술했음을 밝히고 있다. 한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세대에게 친밀하게 다가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술했다고도 기록한다.

『성경으로 읽는 명심보감』은 12장으로 구성돼 있다. 선행과 바른 생활, 마음가짐, 성품, 배움, 자녀 교육, 마음 살림, 인생의 가치와 지혜, 언어, 관계, 다스림 등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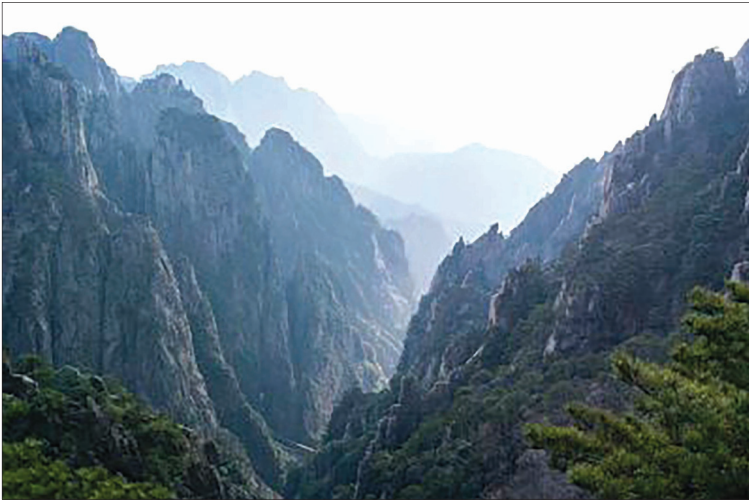
서술 방식은 『명심보감』에 나타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풀이했다. 그리고 풀이된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성경 구절을 적어 서로 간의 공통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보인다.

책을 읽어가면서 느낀 점은 저자인 조성기 목사의 인문학적 지식의 깊이와 넓이가 크다는 점이다. 중국의 다양한 역사와 서구 문학에 관한 해박한 지식, 중국 역사와 관련된 여러 에피소드를 『명심보감』 안에 있는 내용을 추적해 기록한 것은 책이 가진 큰 장점이라 생각한다.

또 성경과 유교적 고전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융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보유론적 입장으로 책을 저술했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주제와 권면은 단순하게 인문학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필자가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기독교 경전으로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려는 목적으로 기록됐으며,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때 인간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말한다. 또 구원 이후 어떠한



▲중국 황산. ©픽사베이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성화 과정과 재림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영화를 기록한 것이다.

이에 반해 『명심보감』은 유교적 가치인 인의예지(仁義禮智)를 기초로 인간이 이 땅에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마음가짐에 대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즉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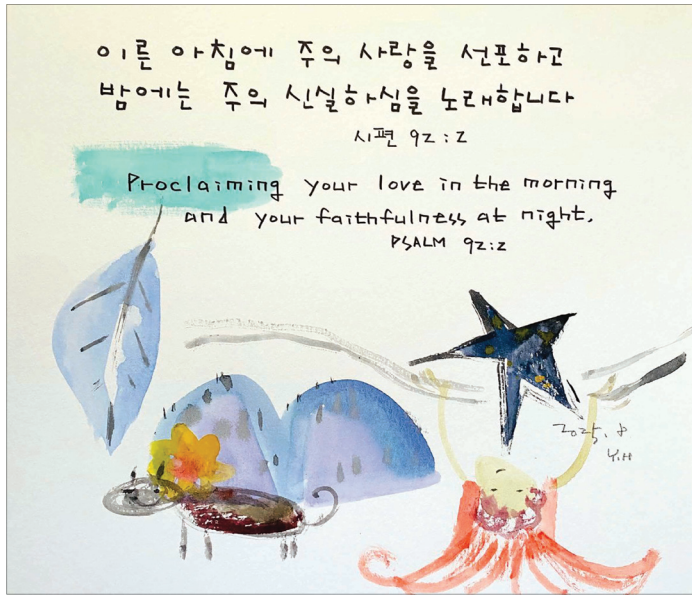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적 지침을 주는 책이 아니라, 무한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소개한 책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명심보감』이 말하는 윤리적 부분과 성경 간의 공통

된 부분만 연결해서 점목한다는 것은 목회적 입장에서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과 성경의 융합을 새롭게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과거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신학이 우리와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한역 서학서를 통해서라면, 오늘날도 그런 역사적 전통을 다시금 기억해 신앙 교육에 유익한 도구로서 활용해 보기를 기대한다.

서상진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龍水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Southwest's leading provider of quality  
*Desert Honey*  
since 1945!

We offer a wide variety of 100% pure and natural Arizona honey.

자연을 정직함, 건강을 선물하세요

미국 프리미엄 허니 브랜드 –

# CROCKETT HONEY

아리조나 사막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세 가지 특별한 꿀이 건강과 품격을 전합니다.  
한국 방문 시,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꿀·꽃가루·로열젤리의 황금 조합

자연이 준 면역력, 에너지, 항산화 효과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Honey 3lbs  
**\$25** +tax

① **Desert Blossom Mesquite Honey**  
사막의 야생화와 메스키트 꽃에서 채밀된 부드럽고 향기로운 맛!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가득한 천연 꿀

Bee Pollen  
**\$45** +tax

② **Crockett Honey (Original)**  
가장 순수한 꿀의 기본! 건강한 단맛과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담은 전통의 맛! 차, 토스트, 요리에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

Royal Jelly  
**\$25** +tax

③ **Crockett Honey with Royal Jelly**  
꿀 속의 황제, 로열젤리를 더한 프리미엄 건강식품!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탁월한 영양 강화 꿀! 특별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로 안성맞춤

(Pick up Only)  
전화 예약주문 **213-434-1170** prozusa1@gmail.com Pick up 장소: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서성록, 한 점의 그림] 『명심도』 삽화

한국 온 선교사들, 말씀과 함께 생명의 문화 싣고...

미국 윌리엄 마틴 베어드 선교사,  
기독교 교육에 많은 관심 기울여  
인간 삶 기독교적 조명 『명심도』  
죄에 빠진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영생 얻는다는 내용  
총 9점의 삽화와 해제로 구성돼  
복음의 수용 관한 부분에 주안점

한국을 찾은 선교사 중에서도 윌리엄 마틴 베어드(William M. Baird, 한국명 배위량, 1862-1931)는 기독교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선교 초기 부산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학교 사역, 여인들을 위한 야간학교 개설, 중반기 조선선교부 ‘우리의 교육정책(Our educational policy)’ 입안, 1897년 평양 숭실학당 건립, 1906년 한국 최초 근대 대학인 숭실대학 건립 등 한국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며 선교활동을 펼쳤다.

선교 후반기에는 숭실대학 학장을 사임하고 남은 인생을 주일학교 공과교재 번역 및 출판, 성경번역 등 다양한 문서선교에 힘을 쏟았다. 그의 기독교교육과 관련해 눈길을 끄는 것은 인간의 삶을 기독교적으로 조명한 『명심도(明心圖, 1912년)』를 펴낸 것이다.

『명심도』는 1926년까지 제7판까지 발행하는 등 상당히 폭넓게 읽힌 책이었다. 책 내용도 유익하지만 당시로서는 드문 삽화까지 곁들여 있어 독자들에게 어필될 수 있었으리라 본다(이 책의 영인·해제본은 2013년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서 『명심도』로 출간되었다). 서문에 따르면, 이 책은 19세기 중후반 중국에서 활동하였던 ‘독일교사 한사백(August Hanspach)’이 번역한 독일어 책을 라인선교회(Rhenish Missionary Society) 소속 중국 선교사 화지안

(Ernst Faber)이 출간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화지안 선교사는 이 번역본의 가치를 알아보고 1879년 중국 양청(羊城)에서 ‘명심도’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것이다.

“이 책은 본래 서양에서 지은 것이니 우리  
동양에는 유익할 것이 없다하나, 그 말은 아  
직까지 사람마다 마음은 같은 마음마다 이치  
는 같은 줄을 모르는 자의 말이니 안팎을 두  
루 살펴보아도 서방이나 동방이나 다를 것이  
없는지라(『명심도』 서문에서).” 전체 이야  
기 구조는 죄에 빠진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  
과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  
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내용으로, 이 책  
은 9절의 삽화와 해제로 구성되어 있다.

『명심도』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복음의 수용에 관한 부분이다. 제1도에선 인물이 화면 상단에 있고, 마음을 상징하는 하트 안에는 일곱 동물들이 자리잡고 있다. 그것은 중세 엠블렘에서 볼 수 있는 칠죄종(septem peccata capitales), 즉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 지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일곱 가지 죄악을 상징한다. 공작새는 교만을, 염소는 음란을, 돼지는 탐식을, 이리는 탐욕을, 뱀은 시기, 호랑이는 분노를, 마지막으로 자라는 나뭇을 각각 나타낸다.

제1도에서 이러한 동물들이 주인공의 심  
중에 눌러앉아 있음을 볼 수 있다. 제목도 “  
세상 사람의 마음이 욕심에 빠짐을 의문함  
이라”고 하여 죄악의 지배를 받는 인간상을  
형용하였다.

그런 죄인 뒤편은 다음에 펼쳐지는 장면에서 반전된다. 제3도에선 일곱 동물들이 하트 바깥으로 쫓겨나고 그 안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날개를 활짝 펴고 있으며 주위에 밝은 빛줄기가 방사형으로 뻗어가고 불같은 것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하트 속에 눈과 별은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지혜'와 '양심'을 가리킨다. 『명심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구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사람의 몸을 입어 십자가에



명심도 제1도.

못 박혀 사람의 죄를 대속하였는데 그 제자들이 이 복음을 기록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보고 구주를 믿어 침례를 면하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고 적고 있다. 화면 우편에는 십자가를 든 천사가 성경을 펼치고 주인공을 돌보고 있는데, 이는 이 같은 은혜의 역사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암시하고 있다. 참 평안과 행복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얻을 수 있고 그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말하는 셈이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은 독일어판 삽화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죄인의 내적 상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삽화에선 천사가 책을 펴고 있는데, 그 안에는 독일어로 ‘에반겔리움 Evangelium’, 즉 ‘복음’이라고 쓰여 있다.

주인공이 감격하여 눈물짓는 장면은 한글 본에는 찾아볼 수 없지만 그의 감격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내주함에서 오는 기쁨 때문일 것이다. 각종 동물들이 겁에 질려 혼비백산 도망치는 장면 역시 독일어판 삽화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한국어판의 저본은 중국어판을 번역한 것이나 중국어판은 독일 요하네스 거스너(J. E. Gossner, 1773-1858)가 지은 『영적인 도덕 거울』(Geistlicher Sittenspiegel)이란 제목으로 베를린에서 출간되었다.

거스너는 이 책이 1732년 뷔르츠부르크에서 출판된 독일어 버전 『인간의 마음: 10개의 상징적 인물도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전 또는 사탄의 일터』 (Das Herz des Menschen : ein Tempel Gottes oder eine Werksätte des Satan)을 기초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터 달리(Peter Daly)는 『초기 근대 유럽의 엠블럼』(The Emblem in Early Modern Europe)(2014)에서 원제목을 『영적 마음 거울』(Geistlicher Seelen-Spiegel)로 삼았으며 발간년도도 1733년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독일어판 저본은 1730

년경에 프랑스에서 인기를 끌었던 칼라이(P. Gallays)의 판화를 수록한 『영혼의 거울』(Miroir de l'Ame) 또는 『죄인의 거울』(Miroir de Pecheur)에 기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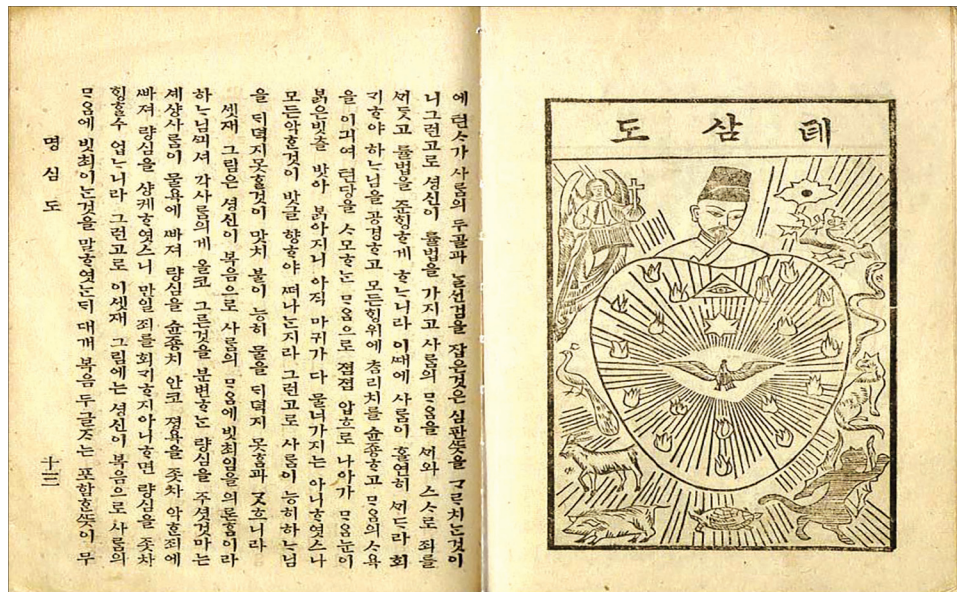
정리하면 한국어판 『명심도』 저본은 동명의 중국어판(1879)이며, 그것은 거스너의 『영적인 도덕 거울』(1812), 그 저본은 뷔르츠부르크에서 출판된 독일어 버전 『인간의 마음』(1732), 나아가 프랑스의 『마음의 거울』 또는 『죄인의 거울』(1730년경)로 소급된다.

필자가 파악한 바로 『명심도』는 독일어판에 수록된 10점 중 제6도에 해당하는 “열정이 식고 세상의 사람으로 돌아온 사람의 마음 상태” 파트가 빠져 있다. 거스너 역시 프랑스판의 12점 삽화 중에서 낙원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마지막 삽화와 그리스도가 마음 한가운데 앉아 있는 제5도를 생략하기도 했다. 역자의 시각에 따라 재구성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이 책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인간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윌리엄 베어드의 『명심도』는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려는 의도에서 계획된 것이었다. 이 문서는 책머리에 공자와 맹자와 같은 동양 사상가들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도의 추구에 동서양에 차이가 없음을 주시킴으로써, 오직 기독교에 ‘마음을 밝히는 보배’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 원본이 독일과 미국, 중국 등 여러 나라를 거쳐 '한국이라는 항구'에 입항하는 가슴 벅찬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셈이다.

이샤야 60장에서 다시스의 배들이 귀한 선물을 싣고 복된 도시에 도착했던 광경을 기술한 것처럼, 선교사들은 한국에 파송될 때 진리의 말씀과 함께 생명의 문화를 싣고 왔다. 그것은 한반도에 우렁차게 '희망의 팡파르'가 울려퍼지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

서성록 명예교수(안동대 미술학과)



명심도 제3도.

#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단단히 지지해 주는 등받이 사용으로 편안한 운전을 경험해 보세요.  
매일 운전하시는 분들, 장거리 운전하실 경우,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장점 1**  
나무는 좌석에  
기대었을 때  
신체에 맞게  
윤곽이 잡힘

**장점 2**  
커버 소재는  
다이빙 슈트로  
제작

**장점 3**  
내구성이 뛰어나며  
운전자에 맞게  
늘어짐

[www.j1mart.com](http://www.j1mart.com)

웹사이트에서 바로 주문하세요.

**문의 : 213-434-1170**



‘사역 중단’ 美 목회자들, 최대 이유는  
‘소명의 변화’ ... 갈등·번아웃도

라이프웨이연구소, 730명의 전직 목회자 대상 설문조사

미국 라이프웨이연구소(Lifeway Research)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역을 중단한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사임 사유는 '소명의 변화'(40%)였으며, 그 뒤를 이어 '교회 내 갈등'(18%)과 '변아웃'(16%)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미국 내 4개 개신교단(오순절교단, 나사렛교회, 웨슬리안교회, 남침례교) 출신 전직 목회자 730명을 대상으로 2025년 5월 6일부터 7월 6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사역 중단의 가장 큰 이유는 '소명의 변화'로, 전체 응답자의 40%가 이를 선택했다. '교회 내 갈등'(18%)과 '변이웃'(16%)이 뒤를 이었으며, '가족 문제'와 '재정적 어려움'은 각각 10%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질병'(6%), '교회와의 부적합'(6%), '교단 문제'(4%),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폐쇄'(3%) 등이 사역 중단의 원인으로 꼽혔다. 사역 중단의 배경에는 교회 내 갈등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87%는 마지막 사역지에서 갈등을 경험했다고, 45%는 사역 마지막 해에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고 밝혔다. 특히 56%는 '변화 제안'으로 인해 갈등을 겪었으며, 49%는 '인신공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약 2명은 목회자의 역할(40%)이나 리더십 스타일(38%)에 대한 기대치와 관련된 갈등을 겪었으며, 약 25%는 국가 또는 지역 정치(27%)나 교리적 차이(22%)로 인해 갈등을 경험했다. 8명 중 1명(12%)은 이 중 아

A photograph showing the interior of a church, looking down a long aisle lined with dark wooden pews. The aisle leads towards a large, ornate altar area with a high, arched ceiling and stained glass windows. The lighting is warm and focused on the altar.

교회 예배당의 모습. ©Unsplash

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라이프웨이리서치 스코트 맥코넬(Scott McConnell) 전무이사는 “일찍 목회직을 떠난 사람들의 경험에는 현재 목회자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것보다 더 많은 갈등이 포함돼 있었다. 복음주의 교회와 흑인 개신교 현재 목회자 중 19%만이 작년에 심각한 갈등을 경험한 반면, 이번 조사 대상인 4개 교단 전직 목회자 중 45%는 목회자로서 마지막 해에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고 말했다. 전직 목회자 10명 중 9명(92%)은 교회 내에서 갈등에 맞설 필요가 있다고 예상했다. 응답자의 86%는 갈등의 징후를 알아차리기 위해 교인들의 말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였다고, 84%는 갈등 예방을 위한 프로세스와 행동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또한 55%는 교육을 통해 사

역의 인적 측면을 다룰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라이프웨이리서치는 "목회자들이 사역을 떠나는 결정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정신적·육체적 건강, 그리고 사역 환경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전직 목회자 10명 중 1명(10%)은 가족 문제가 강단을 떠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지만, 대부분은 가정 생활을 우선시하려고 노력했다. 3명 중 2명 이상(68%)은 시간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때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는 사역 요구 때문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었다고, 41%는 가족이 목회 사역의 요구에 불만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또한 4명 중 3명(73%)은 가족의

재정적 안정에 대해 자주 우려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역이 목회자의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준 것은 아니었다. 전직 목회자 3명 중 2명(65%)은 마지막 교회가 가족들에게 정서적으로 진정한 격려를 줬다고 말했다. 5명 중 4명(80%)은 사역을 마친 후 최소 일주일 동안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낼 수 있었다. 전직 목회자의 5명 중 4명 이상(83%)은 배우자가 결혼 생활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거의 4명 중 3명(72%)은

배우자가 함께 사역하는 삶에 열정적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59%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배우자와 단들이 데이트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일부 목회자들은 은퇴를 불과 몇 년 앞두고 강단을 떠났지만, 다른 목회자들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을 때 사역을 중단했다.

33%가 55세에서 66세 사이에 강단을 떠났으며, 45~54세(35%)와 44세 이하(32%)에 강단을 떠난 목회자의 비율도 비슷했다. 5명 중 2명 이상(43%)은 두 번째 교회로 옮기지 못하고 첫 번째 교회 이후 목회 사역을 완전히 떠났다. 같은 비율(43%)이 담임목사로 10년 이하만 섬겼으며, 그 중 21%는 5년 이하만 목회했다. 약 3분의 1(32%)은 11~20년 동안 담임목사

로 사역했고, 25%는 20년 이상 강단에  
에 섰다.

전직 목회자 4명 중 3명은 첫 번째 교회든 이후 교회든 마지막 사역지가 오래 가지 못했다. 약 73%가 마지막 교회에서 10년 이하만 목회했고, 그 중 45%는 5년 이하만 머물렀다. 20%는 11~20년 동안 마지막 교회에서 사역했고, 20년 이상 지속한 경우는 7%에 불과했다.

강단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목회자의 절반(53%)은 목회자가 아닌 다른 역할로 여전히 사역에 참여하고 있었다. 32%는 비사역 직종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조기 퇴직(7%), 장애(3%), 구직 중(2%) 또는 다른 일을 하는 경우(2%)는 소수였다.

현직 목회자들이 사역에서 성공하  
도록 돕기 위한 조언을 묻자, 전직 목  
회자들은 결혼과 가족을 우선시할 것  
(20%),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말씀  
을 읽을 것(16%), 자신의 부르심을 기  
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14%) 등  
을 꼽았다. 또한 약 10%는 기도(9%),  
여가(8%),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친구와 교제하기(8%), 하나님과 이웃  
사랑 실천(8%),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기(8%), 자기 돌봄(7%), 멘토 찾기  
(7%), 다른 목회자들과의 교류(6%),  
네트워크 형성(5%) 등을 언급했다.

이 밖에 성경적 설교, 봉사, 겸손, 순종, 장로가 이끄는 교회에서의 섬김, 정치적 논쟁 회피, 진정성과 성실성을 드러내는 삶 등을 조연했다. '사역을 떠나라'는 조연은 2%에 불과했다.

신미셀 기자

## WEA, 신임 사무총장에 보트루스 만수르 임명

토마스 슈마허 사임 후 1년 4개월여 만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이 그  
간 공석이던 사무총장에 아랍 기  
독교인인 보트루스 만수르(Botrus  
Mansour)를 임명했다고 크리스천  
데일리인터네셔널(CDI)이 18일 보  
도했다. WEA 사무총장에 아랍 기  
독교인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라고 한다. 그의 이름인 'Botrus'  
는 베드로(Peter)의 아랍어 표현  
이다. 이번 임명은 토마스 슈마허  
(Thomas Schirrmacher) 전 사무

총장이 지난 2024년 3월 31일 사임한 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지난 6개월간 사무총장 인선 작업을 진행했던 WEA는 25명의 지원자들 중 최종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한 뒤 국제이사회(IC)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만수르를 사무총장으로 확정했다. 1965년 이스라엘의 나사렛에서 태어난 만수르 신임 사무총장은 예루살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나사렛침례신학교를 졸업하고, 히

브리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1996년 나사렛에서 침례교회를 설립했으며, 현재 나사렛침례신학교의 학장(director)을 맡고 있다.

그는 이스라엘복음주의교회협회(Convention of Evangelical Churches in Israel)의 의장, 요르단복음주의연맹 총무 겸 의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만수르 신임 사무총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전 세계 WEA 가족들과 힘을 합

쳐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이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을 위한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WEA는 새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보트루스 만수르에 대해 "각 국가별 복음주의 연맹 등 모든 가족들과 함께 그의 리더십을 기원한다"며 "세계 복음주의자들을 하나로 묶는 비전을 제시해주시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문선영의 머니토크**

## 401k 중에서 일부만 미리 옮기게 된다면

**질문** 안녕하세요 문선영 선생님, 평소 유튜브와 라디오를 통해서 많이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61세이고 이제 3년 후면 아마 퇴사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직장에 401k가 없었는데 18년 전부터 회사가 401k를 해줘서 저는 조금 많이 넣어서 현재 41만불 정도가 됐습니다. 문선영님이 강조하는 것이 은퇴가 가까워지면 안전하면서 이자 잘 받는 곳에 꼭 넣으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3년 가까이 남아 있으니까 401k가 오르고 떨어지는 것 보면서 정말 실감이 납니다. 어쩌면 내가 은퇴하는 날 내 401k가 떨어져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과 신경을 쓰다 보니 매년 오르고 떨어질 때마다 받는 스트레스도 생각보다 큼니다. 정말로 주식의 이자 만큼 자라는 그런데도 안떨어지는게 있으면 제 401k를 회사 다니기 전이라도 부분적으로 35만불 정도라도 좀 옮겨놓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옮겨놓을 때 어떤 플랜이 좋은지도 궁금한데 문선영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 드리면 앞으

로 3년 은퇴를 앞두고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한 어뉴이티로 옮겨 놓겠다는 것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옮기는 데에는 주식시장의 불안함 때문에 내 은퇴자금 401k가 허물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지요. 선생님의 경우 3년 동안 앞으로 401k를 계속 부으실 생각이시고, 그 안에서 또 돈은 주식에 의해 투자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들어가는 돈은 주식시장의 직접적인 투자에 넣으신다면, 401k 중 35만불 정도는 주식시장의 간접적인 투자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간접적인 투자가 바로 주식만큼 자라지만 내 돈이 직접 주식에 투자되지 않고 인덱스 방식의 이자로 절제 떨어지지 않는 안전 자산의 어뉴이티로 풀으며, 옮겨놓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현재 자산도 분산시켜서 관리하는 셈이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35만불은 평균이자 주식만큼은 자라지만 절대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돈을 안전한 인덱스 어뉴이티로 옮긴다고 해도 과연 어떤

상품으로 옮겨야 할 것인가는 다음의 몇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선생님의 정확한 은퇴 시점입니다. 둘째 선생님의 필요하신 은퇴 자금과 401k 이외의 다른 은퇴 인컴 소스가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셋째 선생님의 건강에 대한 계획도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선생님의 필요하신 은퇴 자금은 은퇴 시기와, 소셜 연금을 언제부터 찾아 쓰실 지, 얼마나 찾아 쓰실 지, 부동산 렌탈 인컴과 같은 가정내 다른 인컴은 발생 하는지 등등에 따라 상품을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은퇴는 3년 후에 하시지만 실제로 401k에서 인출을 하는 것은 70세가 넘어서 해야겠다고 한다면 플랜을 거기에 맞게 해야 하겠죠. 선생님이 다른 은퇴 플랜들이 있고 은퇴 인컴이 있기 때문에 이 401k에서는 굳이 세금을 많이 내면서 찾고 싶지 않아도

### 재정상담 누구에게 맡기시나요?

**실력/ 신뢰/ 경험을 바탕으로 만족도 1위 재정전문가 문선영이 있습니다.**

생명보험/ 은퇴연금/ 리빙리테이션/ 401K/ IRAs/ 학자금/ 임대주택/ 상속



**문선영의 머니토크**

여러분이 돈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돈 이야기를 알차게 내 돈으로,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필요와 욕망을 비교해 가자. 돈에 대한 이야기를 지혜롭게 듣고, 인간에게 물어드립니다. 리터러시와 금융지식, 돈 이야기 #성공에서 얘기하는 재정 #은퇴를 설계 케이스 적용까지 살펴봅니다.

**라디오에서 문선영의 머니토크**

미국최초/미국최고, 미국중앙의 재정방송 라디오문선영의 머니토크(미디오에서 AM105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626-827-9599**

3435 Wilshire Blvd., 14FL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되는 형편이라면 다른 인컴 들을 먼저 활용하고 여기서는 미니멈(RMD)으로 찾아 쓰시면 되겠지요. 3년 후부터 은퇴 인컴으로 찾아 쓰신다고 해도 매년 매달 같은 고정인컴 (Guaranty Income)으로 찾는게 적절할지, 아니면 필요할 때만 찾아쓰는게 맞을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우려 때문에 통틀케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싶으시다면 당연히 어뉴이티 안에서 어떤 어뉴이티 상품을 골라야 할 지 또 결정하셔야 하고요.



# 626-827-9599

3435 Wilshire Blvd., 14FL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시라

# IXΘΥΣ

## 러빙워십 찬양 콘서트 익투스 — IXΘΥΣ

- Speakers

강준민 목사, 구봉주 목사  
박은성 목사, Joseph Lee 목사
- Loving Worship  
Praise Team
- Tickets

\$10 | 213.357.1565
- Guests

조혜련, 브라이언 킴



Saturday [ 토 ]  
10.04.2025 — 6:30PM

새생명비전교회  
4226 Verdant Street  
Los Angeles, CA

Sunday [ 주일 ]  
10.05.2025 — 7:30PM

감사한인교회  
6959 Knott Avenue  
Buena Park, CA

Friday [ 금 ]  
10.10.2025 — 7:30PM

나성영락교회  
1721 North Broadway  
Los Angeles, CA